

IFS 워킹페이퍼 2026-01 (Vol.1)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한국 유권자의 주관적 중도인식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FS 워킹페이퍼 2026-01 (Vol.1)

한국 유권자의 주관적 중도 인식

임동균^a
2026. 7

a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ongkyunim@snu.ac.kr)

인용 정보

임동균 (2026). 「한국 유권자의 주관적 중도 인식」.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IFS 워킹페이퍼 No.2026-01, Vol. 1).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목차

초록	04
Abstract	05
1. 서론	06
1.1. 정치적 중도 연구와 본 연구의 접근	06
2. 자료와 방법론	10
2.1. 자료	10
2.2. 분석 전략	11
3. 분석 결과	16
3.1. GBM, SHAP 분석 결과	16
3.2. Elastic Net 분석 결과	18
4. 결론 및 논의	20
참고문헌	21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이 스스로를 정치적 '중도'로 인식할 때 그 자기평가가 어떠한 내적 준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지를 탐색한다. 중도 여러 정치적 태도·인식·감정의 인지적 산물로 보는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 인식 조사」(N=3,000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11점 척도의 이념 자기평가 문항을 넓은 정의(4~6점)와 좁은 정의(5점)의 두 방식으로 이항화하고, 정당·정치인 호감도, 정책 태도, 정치 참여·효능감, 정파적 적대감, 제도 신뢰, 인구학적 배경 등 117개 변수를 투입하였다. 방법론으로는 Gradient Boosting Machine과 SHAP, 부분의존성 분석(PDP), 그리고 Elastic Net 정규화 회귀를 병행하였으며, 예측 성능은 중첩 교차검증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중도인식은 정책적·이념적 입장이 아니라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감정 온도에 의해 압도적으로 예측되었다. 응답자들은 어느 정당에 대해서든 호감을 가질수록 중도의 범위에서 이탈한 반면, 강한 정당 비호감을 가져도 정당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다. 나아가 중도를 좁게 정의할수록 정치 관심도와 상대 정당에 대한 규정의 부재('모름')와 같은 정치적 비관여 지표가 상위 예측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넓은 범위의 중도가 주요 정당에 부정적 감정을 갖고 거리를 두는 '이탈형 중도(disaffected moderates)'로, 좁은 범위의 중도가 여기에 더해 정치 자체에 무관심하고 정파적 인식 틀이 부재한 '무관심형 중도(inattentive moderates)'로 특징지어짐을 시사한다.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중도층에게 부정적 냉소가 아닌, 긍정적인 전망과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수적일 것임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시사한다.

주제어: 정치적 중도, 주관적 이념 자기평가, 정서적 양극화, 머신러닝, SHAP, 정치적 무관심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nal reference points that shape how Korean voters come to identify themselves as political "moderates," treating moderate self-placement as a cognitive product of multiple political attitudes and emotions rather than a fixed ideological position. Using dat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National Perception Survey on Resolving Social Conflict and Realizing National Integration in Korea" (N=3,000), the 11-point ideological self-placement item was dichotomized into a broad definition (scores 4–6) and a narrow definition (score 5 only), with 117 variables entered—party and politician favorability, policy attitudes, political participation, partisan hostility, institutional trust, and demographics. Gradient Boosting Machine with SHAP, partial dependence plots, and Elastic Net regression were combined, with performance assessed via nested cross-validation. Results show that moderate identification is predicted overwhelmingly by affective temperature toward parties and politicians rather than by policy positions. Favorability toward either major party predicted moving away from the moderate range, while strong dislike was not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neutrality. As the definition narrowed, indicators of political disengagement—low political interest and an inability to characterize the opposing party ("don't know")—emerged as key predic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e broad moderate is a "disaffected moderate" who holds negative feelings toward and distance from major parties, while the narrow moderate is further an "inattentive moderate," indifferent to politics and lacking any partisan framework. For Korea's social integration, what moderates need is political actors offering positive vision rather than reinforcing the cynicism that currently defines this group.

Keywords: political moderates, subjective ideological self-placement, affective polarization, machine learning, SHAP, political disengagement

1. 서론

1.1. 정치적 중도 연구와 본 연구의 접근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치적 중도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에 중도층은 종종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태도나 주장을 가지지 않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유권자의 이미지를 가진다. 한 사회에 지나치게 부유하거나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고, 중산층이 두터워야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되듯, 정치적으로도 매우 강한 이념이나 당파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중도나 중도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정치로 인한 사회의 파편화를 막고, 합의 정치(consensual politics)를 통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다(강원택, 2007). 따라서 양극화의 시대에, 건전한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두터운 정치적 중도를 바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중도층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정치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중도 관련 연구들은 연구의 초점에 따라, 비록 서로 어느 정도의 겹침은 있지만,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비교적 초기에 등장해 이후 여러 후속 경험 연구를 낳은 한 가지 주제는 중도층의 정치적 성격과 그것이 정당들의 전략적 행위 및 선거정치와 관련해 가지는 함의를 탐구한 것이다. 다운즈의 중위 유권자 이론(median voter theory)에서는 각 정당들이 이념적 중간에 위치한 유권자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그들을 상대로 한 전략을 펼치게 된다는 주장을 한 반면(Downs, 1957), 라비노위츠와 맥도날드(Rabinowitz and Macdonald, 1989)는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방향성 있는 정책을 선호하므로 보다 강한 강도로 이끄는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경쟁 정당들에게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강원택, 2007).

다른 한편, 중도층이 가지는 내적 다양성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이 중 어떤 연구들은 진보나 보수 한쪽으로 기우는 중도층, 그리고 정 가운데 있는 중도층과 같이 비교적 일정

한 이념적 스펙트럼상에서 중도층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택(2007)의 경우, 2004년 국회의원 선거후 조사에서 설문한 응답자들의 주관적 이념 평가 자료를 활용해, 대부분의 주관적 중도층이 비교적 분명한 정파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그들은 정치적 불만의 정도가 높고, 정치에 대해 느끼는 효용감과 신뢰가 낮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한국 정치에서 중도 세력이 사회 통합을 위한 중간 지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도층이 가지는 이념적 비일관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Broockman, 2016). 이 연구에 따르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이슈들에 대해 좌-우 스펙트럼에 일관되지 않은 태도가 혼합된 정치적 입장을 가지며, 그러한 태도는 극단적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Clarke et al. (2026) 또한 전미선거조사(ANES)와 호주선거조사(AES)를 활용, 중도층의 내부 다양성을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탐색, 각각 3개 집단(ANES)과 4개 집단(AES)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복수의 집단이 포퓰리즘적 성향을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Fowler et al. (2023)의 경우, 1) 중도층을 여러 사안들에 걸쳐 실제로 중도적(moderate) 입장을 보이는 집단, 2) 정치나 정치 설문에 대해 주목을 하지 않는 집단, 3) 진보-보수의 단일 차원으로는 요약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는 집단으로 중도층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과 도출된 결론은 후속 연구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Broockman and Lauderdale, 2025).

이러한 문헌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되, 본 연구는 한국 자료를 활용, 유권자들의 주관적 중도 인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시각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위치에 대해 평가할 때, 스스로를 중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 이와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는 다른 개인 수준 변수들은 무엇인가?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중도'로 스스로를 분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념적, 태도적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우, 정치적 중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관심은 유사하나,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 다른 관점을 취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중도 위치에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내적 기준 또는 휴리스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가의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자신이 중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내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내적 판단 또는 참조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텐데(Zechmeister, 2006),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중도라는 자기 평가를 각종 정치적 태도, 인식, 감정의 결과물로 보는 것으로, 여러 태도와 인식의 조합이 '중도'라는 자기 인식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중도'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self-placement)은 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산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자료와 방법론

2.1. 자료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026년 수행한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와 인식,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감정, 사회갈등 인식, 민주주의와 제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구학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들의 자기 이념에 대한 인식과 관계있는 변수들을 다각도로 탐색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에서 종속변수로는 응답자가 스스로 보고한 자신의 이념 평가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응답자에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0(매우 진보)에서 10(매우 보수)까지의 11점 척도상에 위치시키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중도의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아, 응답자가 자신을 4점 이상에서 6점 이하로 응답한 경우를 '중도'로 분류하고 이념을 이항 종속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65.2% (N=1,955)가 자신을 중도로 인식한 것이다. 다만 중도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구성과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분석에서는 응답이 5점인 경우를 중도로 정의하여 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5점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적지 않아, 38.3%(N=1,149)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중도 범위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종속변수와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총 117개의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일부 변수들의 응답 범주 더미 변수 처리와 결측값 더미 등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36개 변수가 모형에 사용되었다. 이 변수들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러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변수로, 이 변수들은 감정 온도계 문항(0=대단히 싫어함 ~ 100=대단히 좋아함, 50=중립)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정책 태도 문항들로 한

미동맹, 남북 협력, 조세, 성평등, 이민, 에너지 등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찬반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포괄하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셋째, 정치 참여, 효능감, 및 정치 지식 관련 변수들로, 이는 정치 관심도, 내적·외적 정치 효능감, 그리고 객관식 정치지식 문항의 정답 수를 종합한 지수를 포함한다. 넷째, 정치 갈등 및 적대감 인식 관련 변수로, 정치 갈등의 심각성 인식, 정파적 적대 태도(예: "반대 세력이 집권하면 국가에 해가 된다"에 대한 동의), 타 정당에 대한 규정 방식(협력/경쟁/경계/적대 대상 여부)을 담는다. 다섯째, 민주주의·제도 인식은 민주주의 수준과 만족도, 민주주의/권위주의 선호, 다수결과 소수 보호에 관한 태도, 포퓰리즘적 성향, 제도 개혁 선호를 포함한다. 여섯째, 기관 신뢰 관련 문항들로 국회, 대통령, 행정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각각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한다. 일곱째, 국정평가 및 정치 사건 평가 관련 변수들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계엄 선포와 탄핵 등 설문조사 당시 주요 정치 사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여덟째, 역대 대통령 평가는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11명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아홉째, 사회갈등과 계층에 대한 인식은 세대·젠더·지역·계층 등 사회 균열의 심각성 인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전망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배경 변수들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거주 지역, 종교 정보가 포함되었다.

여기서 일부 문항들은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 제거할 경우 상당한 표본 손실이 일어나고, 결측 자체가 지니는 정보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척도형 문항의 경우 '모르겠다' 응답을 척도의 중간값으로 대체하되, 해당 응답 여부를 나타내는 결측 더미 변수를 함께 생성하여 최대한 정보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에 대한 규정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같은 범주형 문항에서는 "모르겠다" 응답을 독립적인 범주 더미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후술될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 그러한 선호/태도의 부재 자체가 응답자 본인의 자기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2. 분석 전략

전통적인 회귀분석은 직관적이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종속변수와 잠재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상술했듯, 본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도라고 응답하는 경우, 그러한 주관적 중도인식이 어떠한 다른 주관적 태도와 인식과 관련을 가지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사람들이 자기 이념 위치를 정할 때 사용하는 내적 기준과 구조를 매우 광범위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투입되는 변수들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사전적으로 어떤 변수를 선택하여 모형에 포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제한된 선택에 의

해 결정될 경우 분석의 결과와 함의가 그와 같은 설정에 좌우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Gradient Boosting Machine(GBM),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그리고 Elastic Net 정규화 로지스틱 회귀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GBM은 다수의 얇은 의사결정나무를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되, 이전 단계의 예측 오차를 다음 단계가 보완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각 의사결정나무는 단순하지만 이들이 누적되면서 변수 간 비선형 관계와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SHAP은 학습된 GBM에서 각 변수가 개별 응답자의 예측에 기여한 크기와 방향을 분해하는 기법으로,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분석의 경우, 특정 응답자가 중도로 예측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투입된 변수별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분석에서 생산되는 부분의존성 그래프(Partial Dependence Plot, PDP)는 특정 변수의 값을 전체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고정한 뒤 예측확률의 평균을 산출한 것을 시각화한 것이다. 즉,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변수가 단독으로 가지는 관계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 Elastic Net은 변수 간 선형적 관계를 추정하되 기여가 없거나 매우 약한 변수의 계수를 0으로 수축시켜 변수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정규화 회귀로, GBM이 포착하는 비선형 관계와 달리 단조적, 선형적 관계가 강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기법들은 다수의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더라도 정규화와 교차검증을 통해 다중공선성과 과적합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¹⁾ 이는 사전에 소수의 변수를 연구자의 주관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별하기보다, 관련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폭넓게 투입한 뒤 모형이 상대적 중요도를 판별하도록 하기에, 설문 응답자들의 주관적 중도 인식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탐색적 접근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이, 시계열 자료가 아닌 횡단면 자료의 사용 그리고 본격적인 인과추론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본 연구는 자기 자신을 '중도'에 가깝게 평가하는 것이 어떠한 태도, 인식, 감정의 산물로서 생성되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자기 이념 위치를 판단할 때 참조하는 준거 구조가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예측에 기여하지 못하는 변수는 GBM에서는 나무 분할에 선택되지 않고, Elastic Net에서는 계수가 0으로 수축되므로, 관련성이 낮은 변수가 포함되더라도 결과가 크게 왜곡되지 않는다.

3. 분석 결과

3.1. GBM, SHAP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Gradient Boosting 모델에 대한 SHAP 분석을 한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그림 1a>는 중도를 넓게 정의한(4~6점) 경우의 SHAP 요약이다(Nested CV AUC=0.768). 그래프의 Y축에 나오는 레이블은 각각 하나의 변수에 해당하며, 각 줄에 흩뿌려진 점 하나하나가 개별 응답자를 나타낸다. Y축의 변수들은 예측 기여도가 큰 순서로 위에서부터 배열된 것인데, 전체 변수 중 상위 20개만을 보여주고 있다. 상단에 위치한 변수일수록 중도 여부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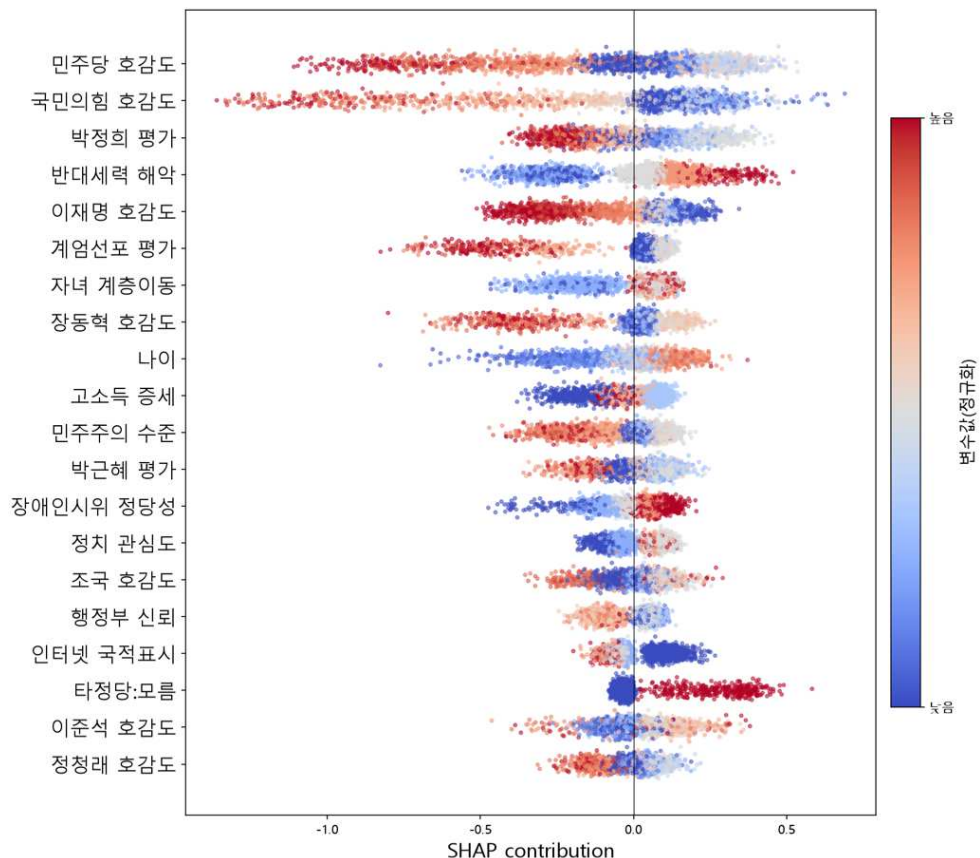


그림1a. GBM SHAP 요약: DV=4~6

점의 가로 위치는 해당 변수가 그 응답자의 예측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켰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중앙의 0 기준선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오른쪽에 위치한 점은 그 변수가 응답자를 중도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왼쪽에 위치한 점은 중도가 아닌 쪽으로 이동시켰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준선에서 멀수록 영향력이 크며, 기준선 부근에 밀집한 경우 해당 변수의 영향이 비교적 미미함을 뜻한다.

한편 점의 색상은 응답자가 해당 변수에서 취한 값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붉은색은 높은 값을, 푸른색은 낮은 값을, 색의 강도가 약하거나 회색빛인 것은 중간값을 의미한다. 예컨대 '민주당 호감도' 줄에서 붉은 점은 민주당을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한 응답자(100점에 근접), 푸른 점은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응답자(0점에 근접)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를 결합하면, 각 변수가 주관적 중도인식과 가지는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패턴은,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압도적 예측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변수들도, 정책적이거나 이념적 이슈와 관련된 변수는 드물고, 대체로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 변수들이 많아, 주관적 중도인식의 내적 참조 구조가 정책적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 대상에 대한 감정 온도에 의해 조직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상단의 민주당 호감도 줄을 보면, 붉은 점(호감도 높음 = 강한 호감)이 음의 SHAP으로 기준선 왼쪽에 넓게 퍼져있고, 푸른 점(호감도 낮음 = 강한 비호감)이 중간선에 주로 분포하면서 양의 SHAP까지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오른쪽에는 중간색(회색)의 응답자들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을 강하게 선호(붉은색)하는 응답자일수록 중도 예측확률이 낮아지고, 강하게 싫어하는 응답자일수록 중도 확률과 관계없거나 그것이 높아지는 방향임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호감도에서도 유사한 배치가 나타나는데, 음의 SHAP 크기가 더 큰 쪽까지 응답자들이 분포되어 있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은 중도 예측 확률을 더 크게 떨어뜨림을 보여준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은 사실상 중도 예측 확률을 대체로 상승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당 및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은, 이후에 살펴볼 부분의존성 그래프(PDP, 그림 3)에서 확인된, 비대칭적 역U자 관계가 색상 및 위치로 나타난 것이다. 즉, 주요 정당을 좋아하는 것은 주관적 중도인식에서의 중도예측 확률을 낮추지만, 정당을 싫어하는 것은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그 확률을 오히려 높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양당에 대한 호감도 다음으로 높은 예측확률을 보이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인 세력에 대한 태도이다. 박정희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수록 중도에서 멀어지지만, 부정적이라고 해서 역시 중도에서 멀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중도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 세력 해악 변수는 "반대 세력이 집권하면 국가에 해가 된다"에 대해 비동의하는 정도(1=매우 동의 ~ 5=전혀 비동의)를 나타낸다. 이에 비동

의할수록 중도, 그 반대일수록 중도에서 멀어짐이 예측된다. SHAP 예측력이 가장 큰 이러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념적, 정책적 위치보다, 어떤 정당이나 정치집단에 대한 태도가 주관적 중도인식을 가장 크게 예측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도 인식이 정서적 양극화의 구도 안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정치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응답자들을 중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스스로를 중도로 인식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의미가 상당부분 정치나 정치집단에 대한 반감에 기초한 주관적 입장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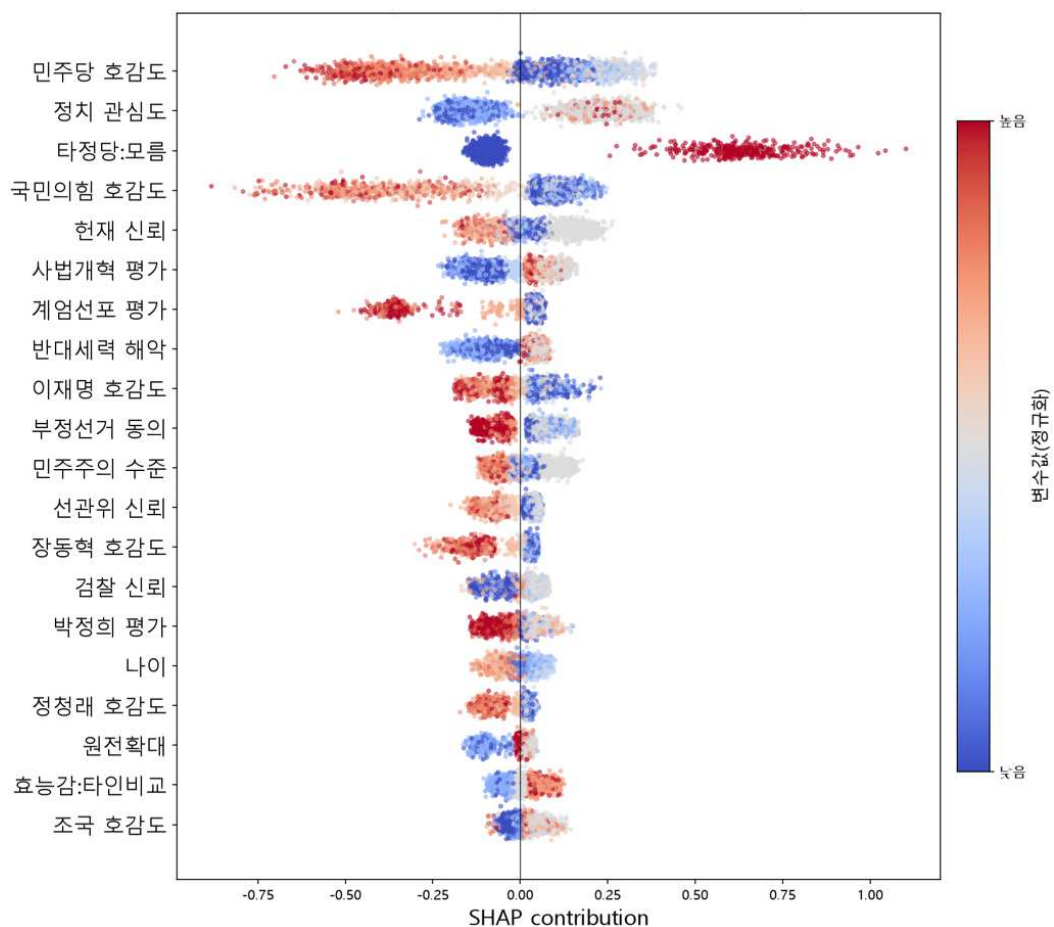


그림 1b. GBM SHAP 요약: DV=5

그림 1b는 중도를 좁게 정의한(정확히 5점) 경우의 SHAP 요약으로, 그래프를 읽는 방식은 그림 1a와 동일하다(Nested CV AUC=0.754). 종속변수 정의를 좁히면서 예측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 변수들이 여전히 상위에 위치하여 감정적 거리가 핵심 요인임은 유지되지만, '정치 관심도'와 '타정당 규정: 모름'이 상위로 새롭게 부상한다. '정치 관심도' 변수는 그 값이 클수록 관심이 없음을 나타낸다. '타정당

규정' 변수는 상대 정당을 협력, 경쟁, 경계, 적대 중 무엇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물음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가리키는 더미 변수이다. '정치 관심도' 줄에서는 색상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관심 수준이 낮은 응답자는 대체로 기준선 오른쪽(중도)에, 높은 응답자는 왼쪽에 분포한다. 즉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5점 중도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높은 예측력을 보인 타정당 규정 변수에서는, 이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면 5점 중도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 변수들은 4~6점 중도에서는 유의미한 순위를 보이지 못하다가, 5점 중도로 좁혀 예측하는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부상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주관적 중도에 대한 넓은 정의(그림 1a)에서 중도가 '어느 정당에도 강한 긍정적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다면, 좁은 정의(그림 1b)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고, 상대 정당에 대한 뚜렷한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 정치적 관여의 부재와 정파적 인식 틀의 결여라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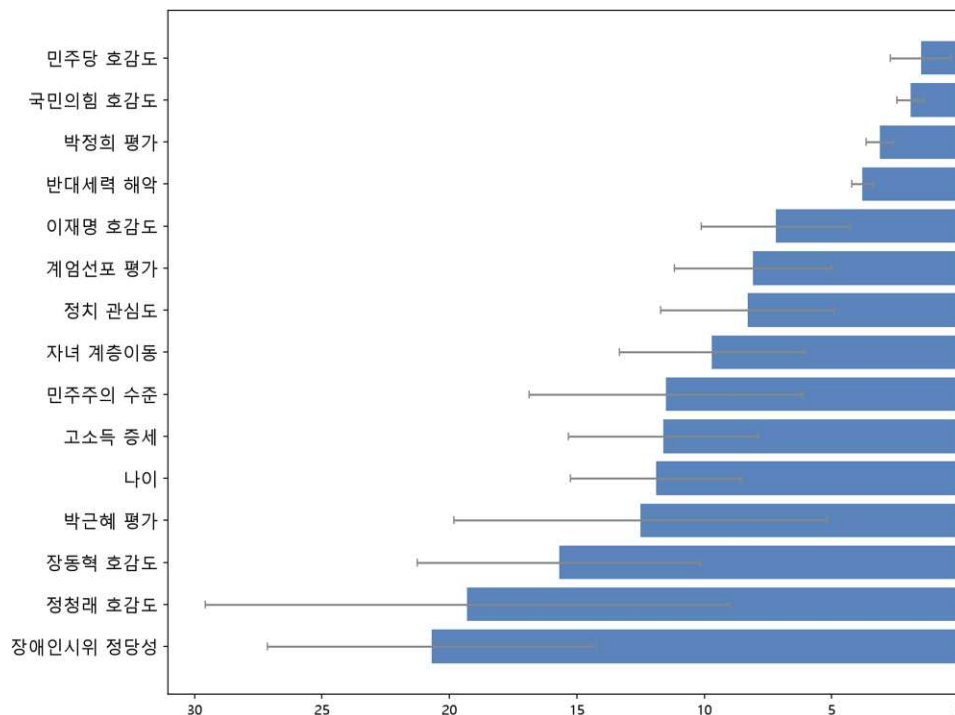


그림 2a. SHAP 변수 중요도 상위 15개 변수 (DV= 4~6)

(막대: 평균 순위, 오차막대: 순위 표준편차)

그림2는 SHAP 기여도 결과의 다른 측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변수 중요도 순위의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SHAP 기반 변수 순위는 학습 표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무작위 분할로 모형을 10회 반복 학습하여 각 변수의

SHAP 중요도 순위를 산출한 후 그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막대는 반복 간 평균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짧을수록 순위가 높음, 즉, 중요함을 뜻하고, 오차막대는 순위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짧을수록 해당 변수의 순위가 표본 구성에 관계없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상위 네 개 변수, 즉, 민주당 호감도, 국민의힘 호감도, 박정희 평가, 반대 세력 집권 시 국가 해악 인식은 오차막대가 매우 짧아, 반복 학습에도 최상위 순위가 거의 변동하지 않음이 나타난다. 이 변수들이 주관적 중도인식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는 것이 표본의 구성과 관계없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위권 변수들(이재명 호감도, 계엄선포 평가, 정치 관심도 등)부터 오차막대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반복에 따라 순위가 수 계단씩 변동하고, 하위권으로 갈수록 이러한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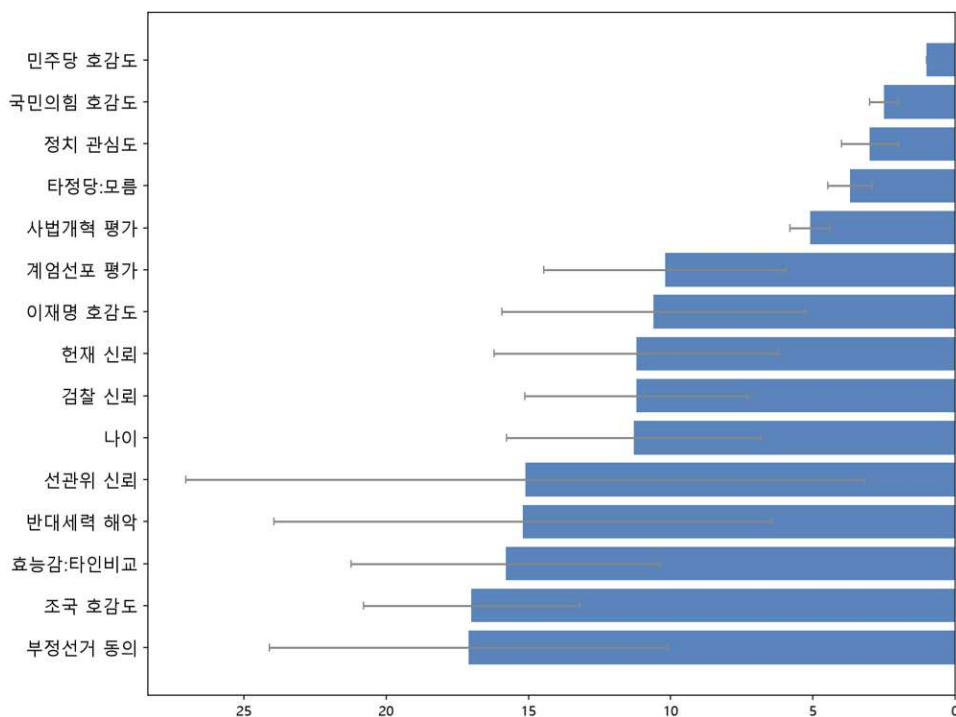


그림 2b. SHAP 변수 중요도 상위 15개 변수 (DV=5)

(막대: 평균 순위, 오차막대: 순위 표준편차)

<그림 2b>는 중도를 5점으로만 정의했을 때 투입 변수의 중요도 순위의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로, 분석 절차는 앞서 그림과 동일하다. 분석 결과, 상위 다섯 개 변수, 즉 민주당 호감도, 국민의힘 호감도, 정치 관심도, 타 정당 규정 "모름", 사법개혁 평가는 오차막대가 짧아 반복 학습에도 순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민주당 호감도는 순위 변동이 거의 없어 중도를 5점으로 정의하는 경우, 응답자의 중도인식을 상대적으로 가장 확실

히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의미 있는 결과는 정치 관심도와 타 정당 규정 "모름"이라는 두 정치적 비관여 및 무관심 지표가 상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한다는 것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다. 중도를 4~6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 두 변수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변동이 컸던 것과 대조적으로, 5점으로 좁게 정의한 경우에는 이들이 비교적 견고하게 상위를 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도의 정의 척도상에서 가장 좁게 잡을 때, 정치적 관여의 부재와 정파적 인식 틀의 결여가 부각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계엄 선포 평가 변수를 포함한 그 이하의 순위에 놓인 변수들의 경우 순위 변동 폭이 상당히 커서 세부 순위에는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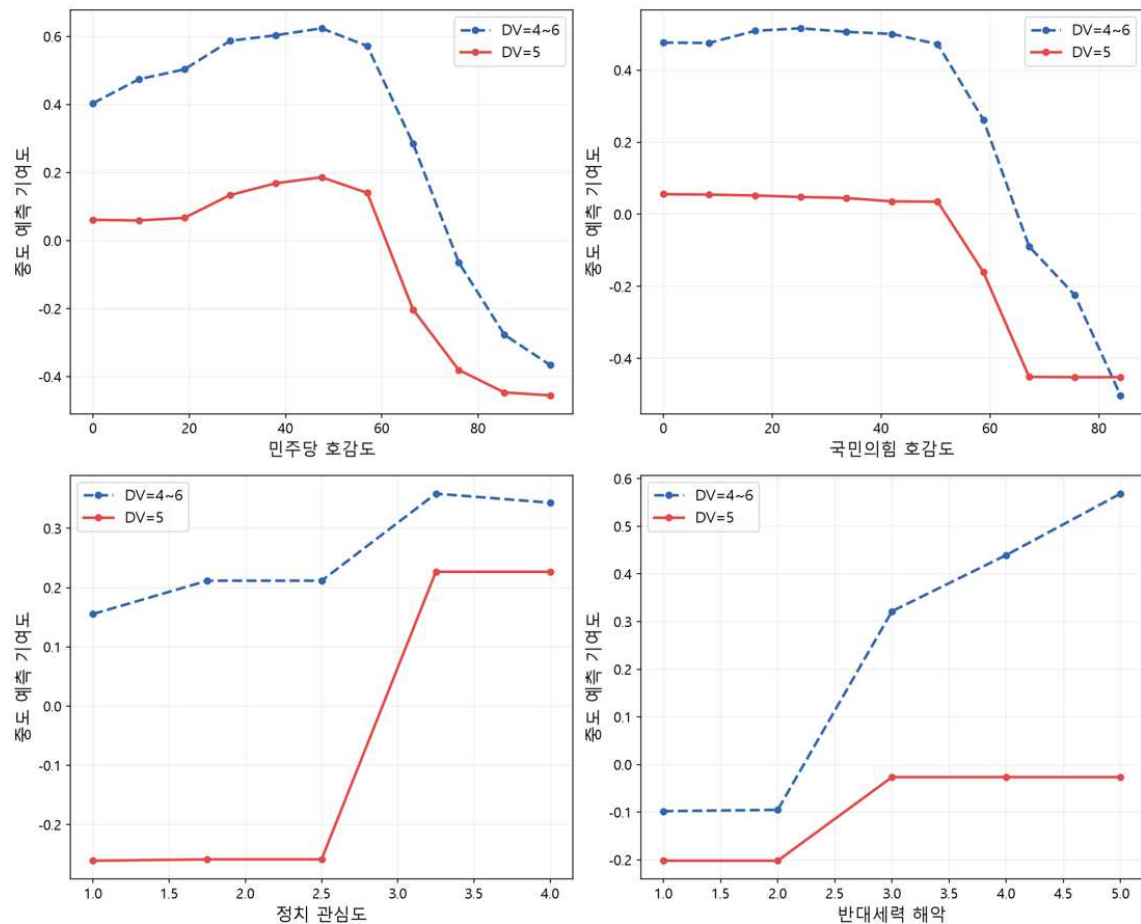


그림3. 부분 의존성 분석(PDP): DV=4~6 (파랑 점선) vs DV=5 (빨강 실선)

<그림 3>은 순위 안정성 검증에서 상위에 위치한 네 개 변수에 대해, 중도에 대한 넓은 정의(4~6점, 파랑 점선)와 좁은 정의(5점, 빨간 실선)의 부분의존도(partial dependence)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세로축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변수 값의 크기에 따른 중도 예측 기여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중도로 분류될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다. 두 정의의 세로축 절대 수준은 표본에서의 기저 중도 비율(4~6점은 전체의 65%, 5점은 전체의 38%)의 차이로 인해 다르므로, 각 곡선의 Y축 상에서의 절대 높이보다 형태와 변동 폭에 주목하여 해석한다.

민주당 호감도와 국민의힘 호감도는 모두 비선형 형태를 보이되 그 세부 양상이 대비된다. 민주당 호감도는 0점에서 약 60점 구간까지 완만한 정점을 이룬 뒤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절벽과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민주당에 대한 강한 불호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감정(40~60점)인 경우 중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약간 더 높다는 점 또한 나타난다. 국민의힘 호감도는 이와 달리 낮은 구간에서 50점 구간까지 중도 예측 확률이 상당히 평탄하게 유지되다가 50점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형태를 띤다.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변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당들에 대한 비호감은 중립적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중도 예측률이 가파르게 낮아지는 절벽 모양의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정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응답자가 중도에서 이탈하고, 비호감은 중립적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하강의 시작점과 기울기가 정당별로, 중도를 정의한 방식마다 약간 다른데, 국민의힘의 경우 비호감 구간에서의 중도 예측 확률이 넓고 평탄하다는 점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만으로는 이념 정체성이 뚜렷해지지 않는 반면, 강한 호감은 보수 정체성으로 직결됨을 시사한다. 정당에 대한 강한 비호감이 곧바로 긍정적 당파성이나 뚜렷한 이념성향 형성과 연관을 가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치 관심도와 반대 세력 해악 인식은 정당 호감도와는 구별되지만, 임계점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정치 관심도의 경우, 좁은 정의에서 관심도가 보통에 해당하는 지점을 경계로 중도 예측 기여도가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도약한 뒤 평탄해지는 계단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정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유무가 결정적 분기점이며, 무관심의 정도 차이는 추가적 변별력을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대 세력 인식 변수 역시 유사한 임계적 상승 형태를 보인다. 정파적 적대감이 강한 쪽(X축 좌측)에서 중도 예측이 낮게 유지되다가, 적대감이 약해지는 지점을 지나면서 빠르게 상승한다. 넓은 중도 정의에서는 이 상승이 척도 끝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반면, 좁은 정의에서는 특정 지점 이후 평탄해져, 정파적 적대감의 약화가 넓은 정의의 중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3.2. Elastic Net 분석결과

그림 4a와 4b는 각각 중도 인식의 넓은 정의(4~6점)와 좁은 정의(5점)에 대한 Elastic Net 회귀의 표준화 계수 상위 변수를 제시한 것이다. 계수가 양수이면 해당 변수 값이 클수록 중도 예측확률이 높아지고, 음수이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lastic Net은 앞서의

GBM과 달리 변수 간 선형적 관계를 추정하므로, SHAP 결과와 달리 단조적 관계가 강한 변수들이 상위에 놓이고, 앞서 PDP에서 나타난 비선형적 관계나 역U자에 가까운 패턴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에 Elastic Net에서는 SHAP과 다른 변수들이 상위를 차지하는데, SHAP에서 압도적 1위였던 민주당 호감도가 여기서는 최상위권에 오르지 못하는 대신, 정파적 적대감(반대 세력 집권 시 국가 해악 인식), 정치 관심도, 타 정당 규정 "모름"과 같은 변수들이 최상위에 위치한다. 선형적 관계의 크기가 약함에 따라, 특히 중도(4-6)에서 약한 역U자 패턴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호감도 변수는 Elastic Net에서 중요 변수로 포착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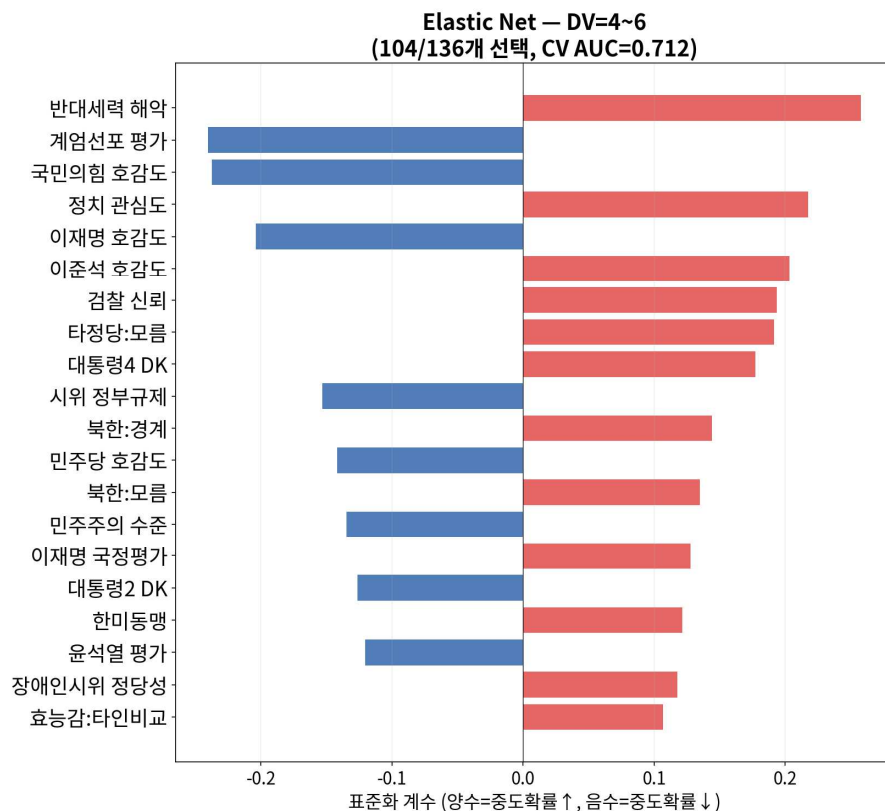


그림 4a. Elastic Net 표준화 계수: DV=4~6

중도의 범위 차이에 따른 두 결과를 비교하면 앞서의 SHAP 결과와 유사한 차이가 확인된다. 그림 4a(중도: 4-6)에서 1위인 정파적 적대감 변수("반대세력 해악")는 그림 4b(중도:5)에서는 타 정당 규정("모름") 변수로 바뀐다. 정치 관심도는 중도를 좁게 정의했을 때 그 중요도가 더 커진다. 이처럼 중도를 보다 좁은 범위로 좁힐수록, 정파적 프레임의 부재, 낮은 정치 관심, 낮은 정치지식과 같은 정치적 비관여의 지표들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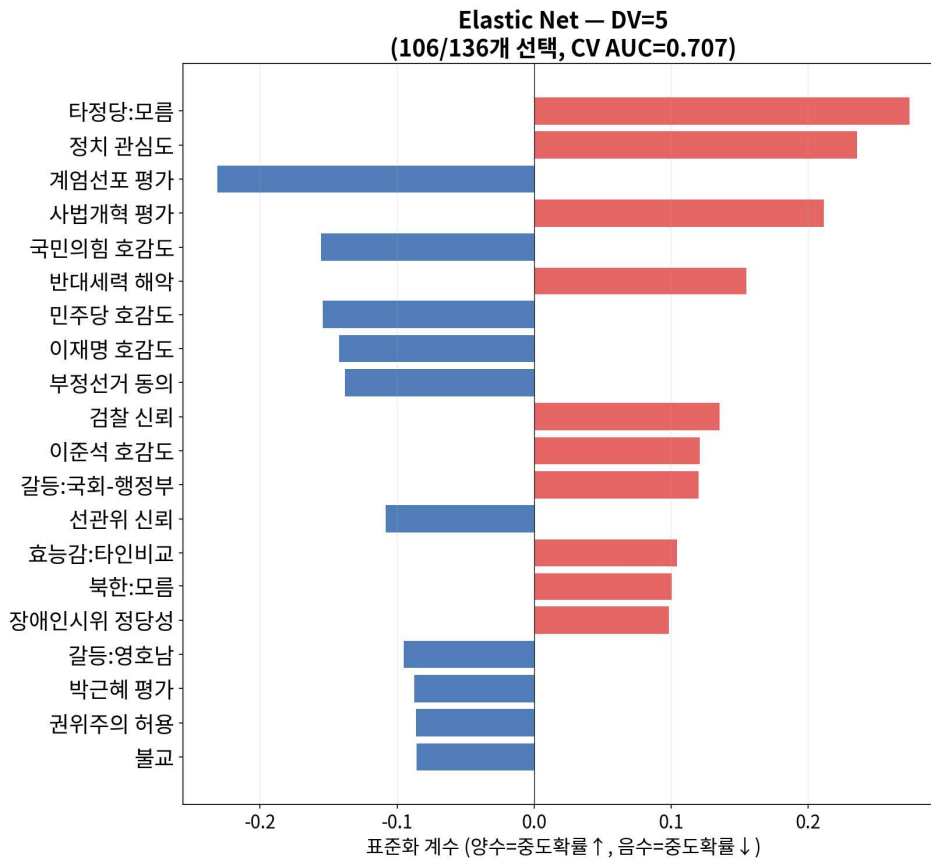


그림 4b. Elastic Net 표준화 계수: DV=5 (좁은 정의)

Elastic Net 분석과 GBM/SHAP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비교적 분명한 결론에 수렴한다. 비교적 넓은 정의의 중도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감정적 거리두기 및 부정적 관망으로, 그리고 좁은 정의의 중도는 거기에 더해 정치적 관여와 정파적 인식 틀 자체의 부재로 특징지어진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중도의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았을 때 한국의 중도는 주요 정당들에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는 중도(disaffected moderates), 좁은 범위의 중도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고 정파적 태도가 부재한 무관심한 중도(inattentive moderates)라고 요약할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주관적 중도인식이 무엇을 근거로 형성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유적으로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어떤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파악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에서 중도의 자기 인식은 정책적 입장보다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감정적 거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중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주로 드러나는 그림이 다르게 나타났다. 11점 척도에서 중도의 범위를 4점에서 6점으로 설정했을 때는 중도가 어떤 정당에도 강한 긍정적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 양극화의 구도에서 주로 부정적 감정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disaffected moderates)이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상대 정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들이 많다. 여기서 중도의 정의를 5점으로 좁히면 거기에 더해 정치적 비관여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상하였다. 즉, 정치 자체에 관심이 약하고, 뚜렷한 정파적 틀을 갖추지 않은 중도(inattentive moderates)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발견은 2026년 현재의 지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관적 위치로서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이념적 중립이나 절충의 산물이 아니라, 정파적 정동에 있어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관망 지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감정적 이탈이 넓은 범위의 주관적 중도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 그 가장 가운데에는 정치에 무관심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3의 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한국 정치에서 끊임없이 있었으나, 그러한 시도는 번번이 어려움과 실패를 겪어 왔다. 다차원적 속성들로 정치적 진보와 보수가 나뉜 한국 사회(강원택, 2005)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은 이들이 가진 욕구와 합리성, 잠재적 정치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의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부분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층에게 부정적 냉소가 아닌, 긍정적인 전망과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수적일 것임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강원택. (2007). 한국 정치에서 "주관적 중도" 유권자의 특성과 의미: 2004 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국가 전략*, 129-150.
- Broockman, D. E. (2016). Approaches to Studying Policy Representatio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1(1), 181-215.
- Broockman, D. E., & Lauderdale, B. E. (2025). Moder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0.
- Clarke, E. J., Eckerle, F., Kerr, J. R., Hill, S. R., Ling, M., Marques, M. D., & Williams, M. N. (2026). Extremism at the Center: Uncovering Political Diversity Among Midpoint Responders on the Left?Right Self-Placement Item. *Political psychology*, 47(4), e70082.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28.
- Rabinowitz, G., & Macdonald, S. E.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 93-121.
- Fowler, A., Hill, S. J., Lewis, J. B., Tausanovitch, C., Vavreck, L., & Warshaw, C. (2023). Moder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7(2), 643-660.
- Zechmeister, E. (2006). What's Left and Who's Right? A Q-Method Study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the Meaning of Ideological Labels. *Political Behavior*, 28(2), 151-173.



IFS 워킹페이퍼 2026-01 (Vol.1)

한국 유권자의 주관적 중도인식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저자	임동균(dongkyunim@sn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880-2893
팩스	02-882-2894
홈페이지	ifs.snu.ac.kr

이 연구내용은 연구자 개인의견이며 국가미래전략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ISSN 3058-5848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